

■ 건국대 맹원재 총장

“생명과학분야 연구에 집중 투자”

誠·信·義를 건학 이념으로 1946년 문을 연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새로운 건국·새로운 천년’ 선포식을 갖고 민족을 생각하고 국제화를 지향하는 학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 맹원재(孟元在)총장은 “21세기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분야 연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8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건국대 총장실



■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날로그가 나왔을 때만 해도 디지털에 대한 변화는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과학기술이며 앞으로 어떠한 발전과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인류복지 증진과 윤택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긍정적 발전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국대학교의 건학정신과 기본 운영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는 1946년 조선정치학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정치대학으로 출발한 것은 설립자이신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樞)박사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려면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야 한다

고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상허선생님이 독립운동가였던 선친을 통해 얻은 이념이었습니다. 상허선생님은 1934년 대중구료사업과 보건운동을 위한 사단법인 민중병원을 기미독립운동을 선도한 33인을 중심으로 언론계·종교계 등 사회 각층 대표 45인이 발기, 창설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건국대학교는 이를 모체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건학 이념 ‘성(誠)·신(信)·의(義)’는 상허선생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는 “민족을 생각하는 학원,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의 지표 아래 구성원 전체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誠·信·義 바탕 ... 1946년 문열어

■ 건국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과학기술 관련분야의 추진사업과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 있다면 ...

지난 해 새 천년을 맞아 과거의 체제를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지는 뜻으로 ‘새로운 건국 새로운 천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젊은 세대 즉 신세대가 선호하는 대학, 둘째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대학, 셋째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가는 대학을 만들자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미래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와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여 생명과학과 정보과학 등 학문 영역별로 특성화분야를 선정,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학발전을 가속화하고자 최첨단분야인 IT, BT와 함께 생활과학의 한 부분인 디자인(Design)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위에서 밝힌 과학기술 관련분야 외에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만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장점을 도입하고 나아가 안목을 넓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을 근간으로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올해 30명의 학생을 선발, 미국 소재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미시시피대학 등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으로 파견, 상호 학점을 교류하고 있으며, 뉴프론티어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 1백50명의 학생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중국 등에 배낭여행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동안 몰랐던 세계를 접하고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해외연구 기회 못지 않게 학생들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건국대학교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인 교수 채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국제학사(International House)는 세계 곳곳의 우수 석학과 교수, 연구진을 초빙, 본교의 학문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외국학생들을 수용하는 국제화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대학의 장,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종합컨설팅회사(A.T.KEARNEY)의 컨설팅을 받아 행정조직 등 대학의 전반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육부문을 *다양한 교육수행을 통한 전공인원 배정체계 *학부소속 전공간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개발 *전공간 실용적 분야에 대한 연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학부생 및 전공배정 학생에 대한 학사지도 서비스 제공, 연구부문을 *연구자원의 확보 *연구분야 선정 *연구활동 및



孟元在 건국대총장(왼쪽)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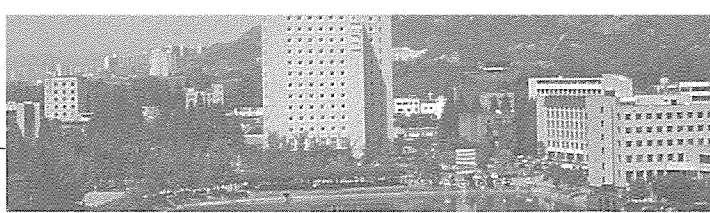
지원 *연구결과의 보상, 행정부문을 *팀제 도입 *인사평가체제의 재구축 방안 *연봉제 도입 *경력개발계획(CDP : Career Development Plan)도입 및 교육지원 강화 방안, 정보화부문을 *정보화위원회 설치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구축 *사이버 교육(Cyber Learning) *전자기록관리시스템(EDMS : Electrical Document Management System)구축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재정부문을 *기부금 조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자산관리의 효율적 개선 *예산수립체계 확립 *관리시스템의 재구축 *공급업체 선정체계 수립 등입니다.

■ 건국대학교는 생명과학분야에서 타 대학에 비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본교는 1959년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축산대학을 설립, 이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설립자이신 상허선생님의 축산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상허선생님은 당시 우리나라가 부강해 지려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이 잘 살아야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허선생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 왔습니다.

21세기 바이오산업 지속적 주도

특히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 활용,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시스템 정착 및 학문적 특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생명공학 연구는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이과대학, 생명과학 전공 등을 주축으로 유전공학, 생명과학, 미생물공학, 의공학에 이르기까지



지 총력을 다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학 산하에는 기초과학연구소, 동물자원연구센터, 농업자원개발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의공학실용연구소 등 전문 연구소가 가동돼 선진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연·산 연구협력체제가 갖추어져 생명과학분야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1세기 바이오 산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인해서 기초과학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국대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국대학교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초분야가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초과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으로 학과 운영상 큰 문제는 없으며 이 분야의 교수들도 연구활동이 활발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초과학 논문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기초과학 논문을 통하여 응용되는 실용과학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장께서는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줄곧 이 분야의 연구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축산분야 학문발전을 위해 한 말씀 주신다면.

축산학하면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육, 증식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축산이라는 분야는 첨단과학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세포배양이라든지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는 배아기술(ET: Embryo Technology)이 축산학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명공학을 우리 생활에 도입하려면 웬만한 실험은 동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젖소의 경우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는 모두 축산기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지금 젖소 한마리가 한해에 최고 4만kg의 우유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와 같은 일은 ET의 유전자 조작 및 영양학의 발달로 이룩된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입니다. 축산분야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의학 등과 함께 연구하고 접목시킴으로써 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탈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가 축산분야로 많이 진출하여 학문적 공헌을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학은 이제 종합학문으로서 확고한 위치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의 공급과 함께 인류의 건강증진

에 기여하는 중요한 위치로 부동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과학기술과 인문과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특히 요즘 인간배아연구 문제와 결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인간생활에 귀중하게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역기능은 주로 인문, 사회학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과학자들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분야마다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타 분야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분들이 경청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도 그 해결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서로간에 이해를 높이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 배아연구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걱정은 인간의 질병치료 등 순수한 인류 복지를 위한 선을 넘는 데 대한 우려로 봅니다만 양심과 학문적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는 유능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다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련업계의 관심을 유발하여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연구비의 증액 및 연구시설의 확충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 이외에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는 각 분야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학문을 위한 학문 보다는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⑤7